

안미정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HK연구교수)

1. 머리말	目次
2. 제일한인사회의 형성	4. 세 여성의 가족과 친족
3. 오사카 제일한인의 이주	5. 맺음말

<초 록>

이 글은 제일한인 세 여성의 생애사를 바탕으로 가족·친족 사이의 다양한 경계와 이산에 대해 기술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고 있는 제일한인 1세 세 여성의 고향과 가족·친족에 관한 것으로서, 가족과 친척 사이에서 형성되어 온 다양한 사회적 경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국적이 다르게 된 역사적 배경, 그리고 정치경제적 상황이 달라지고, 거주하는 공간이 달라짐에 따른 것으로서 이로부터 이주한 자들은 자신의 고향·가족·친족 사이에서 상호 역할의 조정과 교환관계를 이뤄가고 있음을 보였다. 경제적 후원과 친족의 다양한 도덕적 의무를 실행하는 것으로서 지속적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욱 해체의 위기에 놓여 있는 가족의 경우 부계친족 원리를 중심으로 하면서 동시에 가족의 영속성을 지탱하려는 문화적 실천을 볼 수 있었다.

주제어: 제일한인, 오사카, 제주도, 가족과 친족, 국적, 고향, 이주.

1. 머리말

2006년 연구자는 오사카에 살고 있는 한 제일 1세 달래 할머니의 친정아버지 제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 할머니는 인근에 살고 있던 남동생(생남)을 대신하여 제사음식을 정만해야만 했었는데, 제사음식을 모두 올린 후 사진을 찍던 연구자에게 할머니는 제사상이 제대로 차려졌는지 뭔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를 물었다. '제일동료'가 지내는 제사상이 '진짜' 고국의 사람이 보기에 뭔가 잘못된 것은 없을까 혹은 뭔가 빠뜨린 것은 없을까 신경이 쓰였던 것이다. 제사를 마친 후, 음식을 먹으면서 모인 가족들(여동생과 남동생 2명, 모두 일본에서 출생) 사이에서 언쟁이 벌어졌다. 가족 가운데서 장녀인 할머니만이 유일하게 고향(제주도)을 간 적이 없는데 다른 가족들은 그 이유가 '조선'으로 되어 있는 국적(國籍)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만약 달래 할머니가 조선 국적을 '한국'으로 바꾼다면 고향 방문의 길은 보다 쉬울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에 있는 양쪽 가족 사이에서 할머니는 유일하게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KRF-2008-361-B00001). 일본 고베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공동주최하였던 제5회 해양도시 국제 학술심포지엄 <국경을 넘는 사람들과 내셔널리즘>(2009. 11.26~28.)의 발표문(“海を挟んだ家族と親族: 在日コリアンの三の女性のライフ・ヒストリ”)을 토대로 수정·보완하였다.

우리말(제주말)을 할 수 있었기에 그녀가 국적을 바꾼다면 고향 친척들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줄 기대하였다. 그러나 할머니는 다른 형제들의 제안에 “해 나의 국적이 문제가 되느냐?”며 “그렇게 해서 가야하는 고국이라면 가지 않겠다!”고 ‘항변’하였다.

이 날의 상황에서 달래 할머니의 ‘국적’은 단지 그녀 자신만이 아니라 친정의 가족과 고향에 있는 친척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일로 인식되며, 그런 면에서 할머니의 국적은 이들 모두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할머니의 항변에서 보듯이 국적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왜 고향방문에서 중요한가라는 점, 즉 ‘그렇게 해서 가야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2009년 연구자가 다시 오사카에서 달래 할머니를 만났을 때, 그사이 할머니는 국적 변경에 관해 알아봤었다고 하였으나 ‘서류’가 복잡하여 그 일을 그만두었다고 하였다. 제삿날의 언쟁과 복잡한 국적 변경 앞에서 할머니의 친정 가족끼리 고향을 방문하는 일은 더욱 멀어져 가고 있었다. 왜 할머니의 국적은 가족과 친척 사이에서 복잡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할머니는 국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던 것일까? 제일 1세들에게 있어서 국적은 개인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지적되기도 한다. 제일 1세들은 민족교육, 고국방문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조국과의 유대를 지키려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들의 정체성은 ‘민족적(national)’인 특성을 띠고 있다고 한다.¹⁾ 그럼에도 앞에 언급한 것처럼, 국적에 의해 파생되는 다양한 상황들은 개인의 정체성 문제만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것이 분석적 수준에서라 할지라도) 여전히 현실 속에 개인에게 작동하는 사회적 상황은 남아 있다. 1945년 일본에서 해방을 맞이한 제일한인들은 서둘러 귀국을 하였으나 여러 사정에 의해 잔류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귀국하였으나 제자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지금의 제일한인사회를 형성해 온 토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안에는 식민지경험뿐만 아니라 세계적 냉전체제 속의 남북분단과 현대 한국사회의 정치적 과장 등 본국의 정치경제적 변동과 깊은 연관 속에서 형성되어 온 나이테가 있다.

이와 같은 중층성(重層性)은 또한 역으로, 이들이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국가 간의 이해와 외교적 긴장관계에 따라 요동치는 과장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민지와 냉전, 급격한 경제개발 등 한국사회의 압축적 변화 이전에는 가족주의 질서가 강화되어 왔으며, 한국은 가족주의에 기초한 ‘압축적 근대성’(compressed modernity)이 이루어져 왔다는 지적을 참고 삼아 말한다.²⁾ 고향과 모국을 떠나 이주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제일한인의 가족과 친족 연구에서는 압축적 근대가 이룬 그 증폭을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해방 이전에 이주사회를 형성하여 온 제일한인의 경우, 이들은 다른 재외한인과 달리 식민통치의 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정치적 배경 속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제일 1세들의 일상이 그렇다. 만약, 개인이 삶의 안정성 혹은 연속성을 지향한다고 할 때, 외부적 과장을 최소화 하며 자신의 목적과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와 그 가치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 글에서는 식민지시기에 고향을 떠나 일본에 거주하게 된 제일 1세 가족과 친족 사이에 소통을 어렵게 하는 사회적 경계가 무엇인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가족과 친족은 혈연적 관계에 의해 기초적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지만 여타의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고, 또한 개인의 정체성과 생애 의미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가족과 친

1) 윤인진, 2002, 「세계 한민족의 이주 및 정착의 역사와 한민족 정체성의 비교연구」, 『재외한인연구』, 12호, 35쪽.

2) 장경섭, 2008, 『가족·생애·정치경제』, 창비, 15쪽. 압축적 근대성이란 다양하고 급격한 변화의 연속적인 면들이 시간간격으로 이질적인 요소들과 공존하며 매우 복합적인 성격의 문명이 구성·재구성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죽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이 무엇이며, 개인은 또 어떻게 그 영향 속에서 관계를 유지·형성해 나가는가를 보고자 한다. 가족과 친족은 가장 원초적·기본적인 사회관계로서 그 변동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고려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경을 넘어 '이쪽과 저쪽'에 존재하는 제1 1세의 가족과 친척들이 어떻게 지속적 관계를 형성하며 그 사회문화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 접근 방법으로서, 한국의 제주도(濟州道/濟州島) 출신으로 일본의 오사카시(大阪市)에 거주하는 세 여성의 생애를 바탕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은 식민지 시대로부터 지금까지의 한국 근현대사 경험을 지역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자 여성이 말하는 가족과 친족 그리고 고향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회 이상 오사카를 장·단기간 머물며 세 여성의 일상에 참여하며 인터뷰를 수행해 왔으며, 그 자료들을 토대로 이 글을 구성하였다.

2. 재일한인사회의 형성

1) 재일한인의 범주

제일교포, 제일동포, 제일한국·조선인, 제일조선인, 제일코리아, 제일한인 등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과 한국 국적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하다. 일본이라는 거주 공간과 조선(북한)과 한국이라는 두 개의 국적을 공통분모로 하여 지칭되고 있는 것인데 이 바탕에는 한(韓)이라는 민족성(ethnicity)³⁾이 깔려 있다. 현재의 재일한인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층위는 다양하다.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래인(渡來人)도 있었지만, 이를 지금의 재일한인 사회 속으로 들어오기에는 무리가 있다. 도노무라 마사무(外村 大)는 일본에서의 재일한인사회가 형성된 시점을 1920년대로 보고 있다. 그의 '재일조선인' 정의를 보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있어서, ①일본의 정치력이 대한제국의 주권을 좌우하게 된 시기(1900년대 후반)와 식민지시기에, 생활 방도를 찾아 일본으로 와서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조선인, ②생활의 빈곤 외에도 유학 등의 이유로 도입하여 생활 기반을 일본에 두게 된 조선인, ③일제의 전시동원정책과 군인·군속이 되어 일본에 배치된 조선인, ④이상의 세 경우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이나 자손으로 지속적으로 일본에 살고 있었던 조선인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1945년 8월 이후 ⑤이들 가운데에서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본에 살게 된 사람들과 그 자손, ⑥ 1945년 8월 이후 한국전쟁의 전란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헤어진 가족과의 재회 또는 생활상의 이유 등으로 일본에 건너와 생활이 장기화 된 사람, 그 외에도 제일조선인과 같은 양식과 의식이나 생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조선인을 제일조선인이라 하고 있다.⁴⁾ 이러한 정의에 비춰 보면, 이 글에서 언급하는 세 여성은 1945년 이전 일본에서 정주하기 시작하였거나 혹은 그 가족 및 친척이 일본에 거주함에 따라 도입하게 된 '재일조선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의 제일 '조선인'이란 오늘날의 국적(國籍)의 의미가 아님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GHQ(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 점령시기에 일본은 <외국인등록령>을 통해 '재일조선인은 당분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외국인등록을 하도록 했으며, 외국인등록

3) 종족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으나, 민족성이라고 한 것은 이광규 교수의 『민족과 국가』(1997, 일조각, 14쪽)에서 지적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미 많이 사용되어 온 ethnos, ethnology, ethnography 등은 민족, 민족학, 민족지 등으로 번역하여 사용되어 왔기에 ethnicity를 종족이라고 한다면 혼동이 우려되므로 민족성이라고 지칭하는 것일 뿐이다. 아울러 이것은 nation의 '민족' 개념이 아니라 는 점도 밝혀둔다.

4) 外村大, 2004, 『在日朝鮮人社會の歴史學的研究』, 綠蔭書房, 3쪽.

상의 국적 기재는 전부 '조선'으로 하였다. 일본정부가 국적을 전부 조선으로 기재한 것은 이것을 국적으로 고려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조선전체를 나타내는 명칭으로서 조선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50년 1월 이후 한국정부가 GHQ에 이 국적란의 조선은 '한국'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GHQ는 일본정부에 한국으로 바꿀 것을 지시하였다. 일본의 법무총재는 담화를 통해 이것은 "간단한 용어의 문제이고, 실질적인 국적의 문제나 국가의 승인의 문제와는 전연 관계가 없고, 조선인이든 대한민국인이든 어디를 사용하여도 그 사람의 법률상의 취급을 다르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지만, 조선에서 한국 국적으로 바꾸는 것만을 인정할 뿐 한국 국적에서 조선으로 바꾸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⁵⁾

이처럼 현재 대다수 제일 1세들이 '재일조선인'이라 불리고, 그들의 국적이 조선이라 하여도 이것은 북조선에서 태어나서 혹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기보다는 식민지체제에서 별칭체제로 전환된 동북아시아의 경제 한 가운데에서 교집합처럼 중복되었던 이들을 국민국가의 틀로 분류함에 따라 국적의 의미로 바뀐 것이라 하겠다. 가족 및 친족의 문제로 접근할 때, 그들의 가족은 남북한을 가로질러 존재한다. 따라서 '재일한국·조선인'이라는 국적 범주 안에서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글에서 '재일한인'이란 다양한 시기와 목적으로 일본에 건너가 거주하는 넓은 의미의 한인들을 지칭하는 것이며, 다만 그 속에서도 역사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제일 1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한·일 양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제일 1세는 재일한인사회를 형성하여 온 기층 토대이며, 이 재대가 바라보는 식민지 해방과 냉전의 의미는 본국의 사람들이나 최근의 새로운 이주자들("뉴커머")과 다른 맥락에 서 있다고 하겠다. 가령, 제일 1세들에게 1945년의 '해방'은 본국의 사람들과는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 기점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민족이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 외에도, 또 다른 이상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시적 접근에서 보다 미시적 차원으로 들어가 개인의 생애나 생활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재일한인사회의 제일 1세뿐만 아니라 이후의 2·3세대 및 1980년대 이후의 새로운 이주자들을 포함하는 재일한인사회의 폭넓은 층위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틀을 마련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2) 재일한인 연구

재일한인 사회에 대한 연구는 주요한 몇 가지의 연구주제로 귀결되며, 그것은 또한 국내의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의 경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우선, 재일한인의 연구는 해외의 한민족 동포로서 접근하는 재외한인 연구가 있다. 재외한인학회에서 발간하는 『재외한인연구』가 그 대표적인 저널로서, 이는 한민족공동체를 상징하고 세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한인의 이주 역사와 민족정체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⁶⁾ 해외 한인들의 현지 지역사회의 사회관계보다는 '한민족'적 특성을 담지하고 있는 '공동체'로 가정하여 한민족정체공동체, 문화공동체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재외동포'의 '민족적' 상황에 대한 집약적 논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용이하나, 반면 하나의 공동체로서 민족을 가정함에 따라 그 안에서의 다양한 변동과 갈등의 질적 측면을 놓칠 수 있다. 『해외한인의 민족관계』는 재외한인사회의 형성과정을 현지사회의 적응과 갈등, 타민족과의 관계 속에서 고찰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⁷⁾ 현지의 지역사회와 재외한인들의 다

5) 山田照美·林鐘鳴 編, 1992(1991), 『在日朝鮮人』, 明石書店, 154~155쪽.

6) 재외한인학회, 2002, 『재외한인연구』, 12호와 13호 참조.

양한 사회관계 및 개인의 실천적 행위들을 고찰해야 하는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두 번째, 소수민족, 소수자의 관점에서 제한한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2002년 한국문화인류학회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펴낸 『일본관서지역 한인동포의 생활문화』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동포'의 이주역사 및 가족과 친족, 직업과 경제, 의식주, 의례와 신앙, 언어와 민족교육, 세시놀이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조사보고서라 할 것이다. 특히 '민족학'의 현장연구를 통해 정병호(2003)는 민족교육을 제한한인사회의 하위문화로서가 아니라 국가이데올로기에 대한 문화적 저항으로 해석하였으며, 지배적 민족국가의 사회 속에서 국경을 넘어서 존재하는 소수민족 집단으로 제한한인은 거주국의 여러 지배민족들과 일상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재생산해 온 민족경제의 다면성 및 민족 정체성의 다중성을 '민족=국민'의 도식이 아닌 새로운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소수민족집단을 국민국가의 틀 속에서 바라보는 한계를 지적하며, 탈경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제한한인의 민족교육은 인권의 문제로서 접근되기도 하였다. 송기찬(2003)은 '제한동포의 현실'을 위기적 상황이라 보며, 단일민족국가 담론 속에서 '젊은 세대'들이 겪는 정체성의 위기에 대해 민족 교육기관이 대안적 기능을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과 억압의 작용은 문화적 인종적으로 같다는 동질성을 가정하는 국민국가의 통합 이데올로기라는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동질성의 이데올로기는 비단 제한한인 뿐만 아니라 일본사회의 또 다른 소수집단(아이누, 부락민, 화교, 오키나와인 등)에 대한 차별의 논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⁸⁾

세 번째, 제한한인사회의 역사적 형성에 관한 연구로서 주로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들이 있다.⁹⁾ 주요화제는 일본사회 내의 조선인(한인) 사회 형성과 차별의 역사가 조명되었다. 이외, 제1, 2, 3세의 아이덴티티와 국적, 법적지위를 고찰하는 연구에서는 일본인으로서의 귀화와 일본 국적법의 논의를 통해 제한한인의 민족적 정체성이 아니라, 일본 사회의 변화(전후보상, 인권보장 및 공생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일본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¹⁰⁾ 이는 디아스포라 관점에서 문화적 아이덴티티의 혼성화(hybridization)를 다루는 영미권의 연구¹¹⁾와 미묘한 차이가 있다.

네 번째, 제한한인사회는 남북한과 일본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 속에서 다중성을 형성해 왔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한한인사회는 독자적으로 형성되어 온 사회도 아니며, 그 안에 세대 간의 차이만 있는 것도 아니다.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 이후의 한반도에서 구축되던 냉전의 문제는 제한한인사회와 별개의 것이 아니었으며,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키쿠치 요시아키(菊池嘉晃)의 『北朝鮮歸國事業』(2009)이다. 해방 후 일본에 있던 제한한인이 자신의 고향, 그리고 체제가 다른 북한(북조선)으로 이주하게 된 '귀국사업'에는 북한과 조선 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외, 일본, 한국, 소련, 미국 등 각국 정부, 적십자와 귀국을 지원한 각종단체 등이 관여하여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의도가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

7) 문옥표 외, 2006, 『해외한인의 민족관계』, 아카넷.

8) Weiner Michael(ed), 1997, *Japan's Minorities: The illusion of homogeneity*; Routledge, xiii.

9) 山田照美・林鐘鳴 編, 앞의 책; 外村大, 앞의 책; 姜在彦, 1976, 『在日朝鮮人の65年』 『季刊 三千里』, 8号(冬), pp. 22-37; 文道平, 1998, 『在日朝鮮人の歴史と展望: 近現代朝鮮と日本の關係史』, 大阪經濟法科大学出版部.

10) 『季刊 三千里』, 8호(1976)・24호(1980); 福岡安則, 2008(1968), 『在日韓國・朝鮮人』, 中公新書.

11) Changsoo Lee and George De Vos, 1982, *Koreans in Japan: Ethnic Conflict and Accommodation*, Univ. of California Press; East Rock Institute, 2000, *Korean in Japan: New Dimensions of Hybrid and Diverse Communities*, Sonia Ryang(ed.), *Korean And Korean American Studies Bulletin*, Vol. 11, No. 1.

었다.¹²⁾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지속된 이 귀국사업¹³⁾은 동아시아 냉전체제를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며, 개인의 차원에서 이것은 이주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가족의 또 다른 이산의 시작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¹⁴⁾ 이때의 가족은 제한한인사회의 제 1세대가 일본에서 이룬 가족들과의 이산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제1세의 생애사는 식민지의 역사적 경험과 한반도의 냉전사가 각인되어 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오구 마 에이지(小熊英二)와 강상중(姜尙中)의 『제11세의 기억』(2008)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 귀국사 자료라 할 수 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저자는, 조선(한반도)과 일본에 걸쳐있는 제11세대의 생애는 20세기 동아시아의 시대적 울영이 확연히 새겨져 있으며, 망국과 종속, 유랑과 이산, 차별과 빈곤, 해방과 분단, 내전과 쿠데타, 민주화와 번영의 역사가 있다고 그의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¹⁵⁾

다섯 번째, 이러한 역사적 의의가 개인의 생애 속에서 어떠한 의미와 양상을 가지고 전개되는가는 지역 연구를 통해서 조명되어 왔다. 이 분야에 인류학자들의 연구가 집중되어 있는데, 제주도 출신자들이 모여 사는 오사카의 이쿠노구(生野區)가 그 예로써, 지역 커뮤니티 연구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제한한인사회 연구 속에서도 특징적인 점이다. 이들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제주사람들이 오사카로 이동하는 가운데 주요한 네트워크는 가족 및 친족 관계에 있다는 점이었다. 1980년대 초반 이광규(1981) 교수는 에스닉(ethnic) 아이덴티티를 가진 일본 사회 내의 소수자 입장에서 '제한한국인'의 생활공간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 외 제주출신들의 의례와 사회조직(이문용 1988)과 한·일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마을 네트워크(김장민 2003, 伊地知紀子 2000, 2006), 제주사람들의 일상세계 속의 일본(오사카)을 보여주는 연구(유철인 2000)가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제11세대의 고향방문 혹은 귀향과 관련한 죽음과 국적의 문제 등을 다루는 연구(안미경 2008; 李仁子 1999)가 있었다. 제주도와 오사카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식민지시기 수산경제 및 항로 운항에 관한 연구(攸方市教育委員會 1991; 河原典史 2006; 塚崎昌之 2009)를 통해서도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그동안 식민지 담론 속에서 조명하지 못하였던 지역사람들의 국경을 넘은 두 공간(지역)의 생활문화는 세계화의 담론 속에서 탈경계적 지역 문화로서 주목되고 있기도 하다(제주발전연구원·제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소 2005; 오사카제주도연구회 2008).

12) 이 책은 당시 관제국의 자료와 최근 공개된 적십자국제위원회(ICRC)의 자료를 토대로 이와 같은 주장을 밝히고 있다.

13) 귀국사업과 관련된 또 다른 연구로서 Tessa Morris-Suzuki(2007)의 논문은 기본적으로 菊池嘉晃(2009)와 같고, 姜尙中(2005)의 저작에서도 부분적으로 참조할 수 있다.

14) 귀국자를 가운데에는 제한한인 외에도 일본인 배우자 및 중국인들도 있었다. 자세한 내역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菊池嘉晃, 앞의 책, 255쪽). 표에서 '조선인'이란 제한한인을 말하며, 1968년부터 1970년 사이에는 귀국사업이 중단됐었다.

연도	귀국자수(명)	귀국자수의 내역(명)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미분류
1959~1967	88,611	81,962	6,642	6	-
1971~1984	4,729	2,337	88	-	2,304
총 인원	93,340	84,300	6,730	6	2,304

15) 52인의 생애사를 바탕으로 역사의 진실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목적 속에 기획된 책이다. 저자는 이들이 읽은 소수자로서 일본인들 사이에서 '이방인'의 이미지가 있다며, 이들의 존재가 역사학의 변경, 계도에 남겨져야 하는가를 묻고 있다. 小熊英二・姜尙中 編, 2008, 『在日一世の記憶』, 集英社.

지금까지 제일한인사회에 대한 연구는 여러 방면에서 축적되어 왔으며, 특히 제주-오사카에 걸쳐 있는 '제일제주인'에 대한 연구는 지역 커뮤니티 연구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들 연구에서 지적되어 온 마와 같이, 가족·동향인·친척 등이 이주의 과정에서 주요한 네트워크 구성을 하였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그 가족과 친족의 관계 및 변화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 한국 인류학에서 연구되어 온 혼인관계 및 부부의 역할이나 가장 권의 성격 등 가족의 사회구조에 관해 친착하고 있는 연구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가족을 인체에 비유한다면 가족의 유형이 의적 형태가 되고, 가족관계가 살이 되고, 가족제도가 내장이 되고, 가족구조가 뼈가 되는 셈"인데,¹⁶⁾ 이런 면에서 본 연구는 제일한인 사회의 외형이나 뼈 보다는 살을 말하고자 하는 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과 친족의 사회관계를 통해서 고향을 떠나 타향에 거주하는 이주자로서의 제일한인의 위치는 보다 분명히 그 생활문화 속에서 조명되리라 본다. 특히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두 지역(제주-오사카) 사이에 존재하는 가족과 친족이 공간적 분리를 넘어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관계의 지속성을 피하는 생활세계에 살펴보고자 한다.

3. 오사카 제일한인의 이주

1) 해방 이전의 이주

한인의 해외이주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김계르만은 대규모의 한인 노동력이 일본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에서 1930년대라고 보고 있다.¹⁷⁾ 1910년 한일합병에 따라 조선인의 일본 이주를 급했던 관계법령들이 자동 폐기된 것과 당시 조선과 일본의 경제적 상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1차 세계대전 초기 일본의 산업은 급속 성장하였으며, 새로운 산업분야 및 산업시설에 노동인구의 수요가 발생하였고, 한반도는 한일합병에 따라 일제의 농업 및 원료 생산 기지와 값싼 노동력의 공급지가 되었던 것이다.¹⁸⁾ 그런데 조선 농민의 빈곤화는 조선에 지속적으로 이주한 일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진행되어 조선 농민의 이주를 더욱 강요하였다.¹⁹⁾ 즉 일본으로의 이동을 촉진한 요인으로 일본인의 한반도 이주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일 사학자 강제연(1976)은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909년 제조일본인(在朝日本人)은 126,168명이었으며 일본으로 간 제일한인 790명보다 보다 월등히 많았다. 제조일본인보다 제일한인이 많아진 시기는 1930년대 말 이후이다. 그 이유를 강제연(姜在彦)은 1939년부터 시작된 강제연행에 따른 것으로 보아, 1938년 이권을 농민출몰탁에 따른 도항(渡航), 그 이후를 전시체제하의 강제연행으로 인한 도항으로 구분하였다.²⁰⁾

1920년대 초 조선 전체 인구의 86%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때문에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 늘어나 조선 농민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였다. 그런데 이 농민출신²¹⁾의 한인 이주민

16) 이광규, 1988, 『韓國家族의 社會人類學』, 집문당, 233쪽.

17) 김계르만, 2005, 『한인 이주의 역사』, 박영사, 374쪽.

18) 같은 책, 376쪽.

19) 평균적으로 보면, 일본인 한 명당 한인 3명이 일본으로 떠났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마을 전체가 일본인들로 완전히 대체된 사례들도 볼 수 있다고 한다(김계르만, 위의 책, 384~388쪽).

20) 姜在彦, 앞의 논문, 24~27쪽. 여기에 제시된 통계자료는 『日本帝國年鑑』, 일본 내무성 경보국 통계, 총독부 『朝鮮事情』(1942년 편) 등이다.

21) 다른 연구에서도 일본으로 간 조선인들을 '농민'이라고 보지만, 엄밀하게는 농어민이라고 해야 한

은 한반도 북부보다 남부지방 출신이 많았다. 1923년 오사카의 한인 노동자들 가운데 80%가량이 전라남도 출신이었고 이중 60%가 제주도 출신이었다.²²⁾ 1923년 오사카와 격할 항로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다시피, 제주도 사람들이 오사카로 이동하는데 발판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²³⁾ 그러나 제주도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게 된 시점은 이보다 앞선 1915년부터라는 주장도 있다.²⁴⁾

이상의 주장을 종합하면, 제일한인사회를 형성하였던 일본으로의 조선인의 이주는 1930년대 말 이전과 이후를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제주사람들의 도입은 1923년 적항로 개설 이전부터 증가추세에 있었다고 하겠다. 당시 도입한 조선인(한인)들은 대부분 남성이었다. 동일한 제일한인을 성별-연령별로 보았을 때, 남녀의 성비가 비슷해진 것은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였다.²⁵⁾ 단지 성비 대비만을 통해 추론해 본다면, 강제징용으로 간 조선인(한인)은 물론, '모집'²⁶⁾과 같이 경제적 목적으로 간 사람들에게도 일본은 정착을 목적으로 살아 도입(渡日)하였다기 보다는 한시적 목적으로 이동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관서지역 제일한인의 이주유형을 보면 먼저, ① 가족 중 1인(아버지나 아들)이 도입하여 살길을 마련한 후 다른 가족이 이주하는 형태, ② 젊은 부부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처음부터 가족단위로 이주한 경우, ③ 친척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도입한 경우가 있다.²⁷⁾ 문옥표(2002)는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관서지역 제일동포 사회가 형성된 식민지 시기만 하더라도 이주하였던 사람들은 대다수 단신 남성 노동자들이었고, 그 후 점차 오사카 이쿠노쿠를 중심으로 가족단위의 한인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생활환경이 어려웠던 제일동포들이 대가족을 형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2002년의 시점에서는 젊은 세대의 직업에 따른 이동과 일본인과의 혼인, 자녀들의 분가 등에 의해 소가족, 핵가족 형태가 전개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제일한인의 가족 구성원과 거주형태의 변화는 더불어 가족 및 친족 관계의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다. 문옥표(2002)는 제일동포들의 친족관계가 이민사회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이 있었다고 말하겠으나, 우선적으로는 "모든 친척이 일본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세대가 바뀌고 이동성 및 귀화의 사례가 늘면서 친족 간에도 지속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²⁸⁾

2) 해방 후의 오사카 이쿠노쿠

다고 본다.

22) 김계르만, 앞의 책, 386쪽.

23) 枚方市教育委員會, 1991, 『在日朝鮮人の歴史』, 枚方市市民歴史講座記録集, 55~56쪽.

24) 塚崎昌之, 2009, 『大阪-濟州島航路の經營と濟州島民族資本』, 『在日朝鮮人史研究』, 39号, 34쪽.

25) 姜在彦, 앞의 논문, 30쪽.

26) 제인1·2세대의 생애사에서 "모집"으로 (일본으로) 갔다는 것을 곧잘 접할 수 있어, "모집"의 성격에 대해 언급해 둘 필요가 있겠다. 모집을 "자주적 선택에 의한 이주"로 보는 주장(塚崎昌之 2009)도 있지만, 이는 1930년대~1940년대의 경향 속에서 고찰될 필요가 있다.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 일본은 1938년 5월 국가총동원법을 시행, 이에 근거한 1939년 7월 노동동원계획을 발표하였다. 총독부는 각 현에 모집인원을 할당하였고 조선의 여러 마을에서 모집을 진행하였다. 예정수의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한 강제력이 수반되었다는 점, 이후 징용의 방식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모집은 자발적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姜在彦, 같은 논문, 25~26쪽).

27) 문옥표, 2002, 『가족 및 친족생활』, 『일본 관서지역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108~109쪽.

28) 문옥표, 같은 논문, 129쪽.

해방과 동시에 200만 여명의 재일조선인은 모두 귀국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며, 그들은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고 있었다. 1945년8월15일, 재일한인들은 조국으로 귀국을 서둘렀기에 시모노세키 및 하카다, 그리고 그 주변의 항(港)은 대혼란으로 빠졌으며, 큰 역 주변에도 귀국의 순번을 기다리는 조선인(한인)집단이 형성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1946년 3월경까지 공식 및 비공식적으로 집계된 귀국자는 130만 여명이었다.²⁹⁾ 1949년 9월, GHQ의 G-2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해방 후 “조선남부(남한)”의 위적난과 높은 생활비는 귀국자가 직면한 2대 문제였다고 한다. 때문에, “일단 귀국한 후에 일본으로 돌아가는 다수의 불법입국자의 원인이 되고 있었고, 이러한 엄혹한 실정이 재일사회에 널리 퍼져 있어 다른 사람들의 귀국을 주저하게 하고 있었다. 또한 남북분단과 미소의 태도는 귀환을 속고게 하는 요소였다.³⁰⁾ 이러한 시점에서 잔류하고 있던 많은 재일한인들은 일본 체제 기간이 비교적 긴 사람들이었고, 일본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다. 고향에서의 생활기반이 전무하거나 취약하고, 또한 조선남부(남한)가 혼란 상태였다는 것과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우리말이 원활하지 않은 아이의 문제도 있었다. 이처럼 일본에 잔류를 선택한 것은 생활상의 이유가 많았다고 지적되고 있다.³¹⁾ 해방 당시 일본에 있던 재일한인 인구는 총 2,206,541명으로 추산된다.³²⁾ 당시 재일조선인(한인)은 일본 전국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주요 거주 지역을 보면 <표 1>와 같다.

<표 1> 재일한인의 거주 지역별 인구

구분	도쿄 (東京)	아이치 (愛知)	오사카 (大阪)	고베 (兵庫)	야마구치 (山口)	후쿠오카 (福岡)
1910년	348	42	206	75	163	335
1920년	2,053	405	4,494	2,562	1,640	6,798
1930년	33,742	23,543	73,622	15,964	10,858	25,838
1935년	53,556	51,461	202,311	46,589	27,347	39,865
1940년	87,497	77,951	312,269	115,154	72,700	116,864
1945년	101,236	142,484	333,354	144,318	144,302	205,452
1947년	21,440	29,569	104,982	58,416	41,773	37,825
1959년	60,085	40,792	133,069	55,193	40,264	33,661
1964년	65,682	44,331	151,448	57,034	38,713	27,793

* 자료: 外村大, 2004, 『在日朝鮮人社會の歴史學的研究』, 藤蔭書房, 44쪽·372쪽. <표 1-10>과 <표 6-5>에서 인구가 많은 상위 6위까지 연구자가 재편집함.

1945년 해방 이전, 오사카는 재일한인이 압도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해방 후에 그 추세는 지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주요 거주지의 재일한인들의 출신지는 경상남도 출신자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며에도 유일하게 오사카만은 제주도 출신자들이

29) 姜在彦, 앞의 논문, 27쪽. 1946년 2월 17일에 GHQ의 “조선인, 중국인, 류큐인 및 대만인의 동북에 관한 각서”가 나와 일본정부 후생성의 주관 하에서 3월 18일을 기한으로 조선인등록총수는 646,943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귀국희망자수는 514,035 명(남조선희망자 504,435 명, 북조선희망자가 9,701명)이었다.

30) 菊池嘉晃, 2009, 『北朝鮮歸國事業』, 中公新書, 22쪽.

31) 같은 책, 23쪽.

32) 外村大, 앞의 책, 42쪽. 이는 일본 국제조사 통계이다. 내부성조사에서는 1,968,807 명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다.³³⁾ 오사카 내에서도 제주도 출신자들은 이쿠노쿠(生野區)에 모여 살았다.³⁴⁾ 이쿠노쿠에 한인들이 모여살기 시작한 것은 1919년부터 1923년까지 행해진 히라노가와(平野川)의 하천공사에 행해지면서라고 알려지고 있으나,³⁵⁾ 공사 이전부터 이 지역의 고무, 유리 공장에 다니던 노동자들 가운데 한인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³⁶⁾ 1923년 제주도와 오사카를 잇는 항로가 열리면서 더 많은 제주도 사람들이 오사카로 이동하게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1920년 후반에 이 주변의 고무공장과 정전(鎗前)공장 등 급속가공 공장에서 일하던 한인들이 있었다고 한다. 해방 전후의 재일한인 가운데 제주도 출신자의 비율을 보여주는 통계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표 2> 재일·재오사카 한인과 제주출신자 인구 구성비 (단위: 명)

구분	재일한인			재오사카한인			재일제주인중재오사카출신자
	계	제주출신자	재일한인중 제주출신자	계	제주출신자	재오사카한인중 제주출신자	
1934	537,695	50,053	9.3%	171,160	37,938	22.2%	75.8%
1974	638,806	101,378	15.9%	178,720	63,972	35.8%	63.1%

* 자료: 枚方市教育委員會, 1991, 『在日朝鮮人の歴史』, ヒんのう(株), 56쪽. 표는 연구자가 재편집함.

이처럼 오사카는 일본 안에서도 제주출신자들이 이주하는 주요 도시임을 알 수 있다. 위 표에서 보듯이 1934년 재일제주인은 약 5만 명이었으며, 당시 제주도 인구가 20만명이었던 것을 감안해 볼 때 도민 네 사람 중 한 명이 왔던 것이라고 한다. 고령의 노인이나 아이들을 제외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개가 오사카로 왔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고,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농업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신조의 묘가 땅치되기도 하였다고 한다.³⁷⁾

오사카로 건너온 제주출신 사람들이 이쿠노쿠에 모여 생활공간을 형성하여 왔다는 것은 “조선이치바(朝鮮いちば, 조선시장)의 형성과정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조선시장은 본래 모모타니(桃谷)에 있는 히라노가와와 시편에 위치한 일본인 상가였으며, 이곳에 재일한인 여성들(제주도 출신 여성들)이 야채와 해산물, 김치 등을 팔기 시작하면서 한인들 사이의 거래가 형성되고, 사람과 물건이 모이는 공간이 되었다. 조선시장은 여성들의 생계활동의 단간이 되었고, 재일한인들의 소비경제 및 사회적 네트워크와 문화적 소통 공간으로 형성되어 왔다.³⁸⁾ 흔히 일컬어지는 오사카시의 “코리아타운”이 이곳이다. 하지만 오사카시 전체적으로 볼 때, 재일한인이 거주하는 주요 지역은 일본천도(JR) 노선 가운데 시내를 순환하는 환상선(環狀線)의 동편 3개 역, 즉 쓰루하시(鶴橋), 모모타니(桃谷), 테라타초(寺田町)까지 넓게

33) 外村大, 앞의 책, 375쪽. 이 당시 오사카는 시(市)가 아닌 부(府)로 되어 있다.

34) 生野區役所, 1997, 『生野區50年の歴史と現況』, トリオ印刷, 127쪽. 이와 같은 재일제주도 출신자들의 지역적 밀집현상에 관해서는 이광규(1981), 정병호(1996), 김재민(2003)의 연구에서도 언급되고 있으며, 이주자들의 밀집과 관련해서는 문숙표(1996), 김계르만(2005), 임재완 외(2006)를 참조할 수 있다.

35) 高賢植, 2007, 『コリアタウンに生きる: 洪呂杓 ライフヒストリ』, エンタイトル出版, 40쪽.

36) 이광규, 1981, 『在日韓國人の 調査研究: 大阪 生野區를 中心으로(1)』 『한국문화인류학』 13집, 29쪽. 이 논문에는 이쿠노쿠의 역사를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한인유적의 분포와 한인의 직업, 주요 거주지 등 오사카 이쿠노쿠의 재일한인 생활이 기술되어 있다.

37) 枚方市教育委員會, 앞의 책, 56~57쪽.

38) 안미정, 2008, 『오사카 재일(在日) 제주인 여성의 이주와 귀향』 『탐라문화』, 32호, 190~193쪽.

나타나며, 그 가운데에 조선시장이 위치하고 있는 셈이다. 쓰루하시 역 주변으로는 한국에서 온 물산과 음식점들이 즐비하여 국제시장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한인타운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근의 이마자토(今里) 역으로 한인 상가가 형성되고 있다.

2009년 3월 기준, 이쿠노쿠에는 총 52,579 세대의 103,991명(남자 50,596 명, 여자 53,395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³⁹⁾ 오사카시 전체의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쿠노쿠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구밀도는 높다(24개 구 중 일곱 번째 해당).⁴⁰⁾ 주민들은 대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나,⁴¹⁾ 지금은 퇴조하고 있다.

4. 세 여성의 가족과 친족

이제 한·일에 걸친 세 여성의 가족과 친족 관계 기술하도록 하겠다.⁴²⁾ 이들은 모두 제주도출신으로 이쿠노쿠에 살고 있지만 고향과 도입한 시기는 각각 다르다. 그리고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여건도 또한 달랐다. 이들 중 두 여성은 한동네에 살며 서로 아는 사이이지만, 다른 한 여성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모두 2층 목조주택을 자택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남편과도 모두 사별하였으나 그 중 두 여성은 혼자 살고, 한 여성은 외손녀와 살고 있다.

1) "모집"으로 온 일본, 돌아가지 못한 고향

달래 할머니(1926년 생)의 고향은 한 때 염전(鹽田)으로 유명한 마을이었다. 다섯 살 무렵 부모가 오사카로 건너가 일을 하게 됨에 따라 고향에서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였다. 고향에서 그녀가 한 일은 소금 만드는 일 외에도, 소를 돌보고, "물집"⁴³⁾을 하였다. 1944년 "해녀 모집"을 통해 그녀는 "부모를 만나기 위해" 일본으로 왔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모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식민통치가 끝난 1945년에 이르러서였다. 그 사이 그녀는 '모집된' 해녀들과 함께 - 23명가량 - 시모노세키(下關), 오키노시마(隱岐の島), 모지(門司) 등으로 일하러 다녔다. 이전에도 그녀는 쓰시마(對馬島)에 물집하러 간 적이 있었다고 하였다. 달래 할머니의 물집은 식민지시기 이곳저곳에서 이루어졌으며 '모집'으로 온 일이 끝난 것이 1945년이었다. 해방 소식을 듣고 그녀는 일하던 동료 한명과 함께 다른 일행들과 헤어져 오사카로 향했다. 오사카에는 그녀의 부모와 동생들이 살고 있었다. 친정의 형제자매는 그녀를 포함 2남 2녀로 그녀가 장녀였다.

남편은 그녀처럼 오사카에 거주하고 있던 제주도 출신이었으며, 결혼 후에는 역 근처의 공원에서 봉어와 잔술을 팔며 생계를 이었다. 이 후 남편이 친정아버지의 양복 "마도베(まどべ)"⁴⁴⁾ 기술을 배우고 나서는 부부가 함께 그 일을 하였다. 자식들을 모두 결혼 시킨 후

39) 大阪府 홈페이지 자료(<http://www.pref.osaka.jp/shichoson/juku/juki2103.html>, 2009.10.29.검색), 주민 기초데이터 등록원 연구수이다.

40) 大阪府 홈페이지 자료(http://www.pref.osaka.jp/toukei2/jinkou_n/xlslist.html, 2009.10.29.검색), <データおさか 2006>, 大阪府統計協會 자료 참조.

41) 生野區制50周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1993, 『生野區50年のあゆみ』, 84쪽.

42) 이들 세 여성가구의 일과 귀향에 대해 연구자의 또 다른 논문(2008)에서 기술한 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그 후속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정보제공자의 이름은 제공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기존 논문과 다른 가명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밝혀둔다. 남북한의 긴장관계가 여전히하고, 적극히 사적인 가족 관계를 모두 다 세밀히 언급할 수 없는 것은 본 논문이 갖는 한계로 남겨두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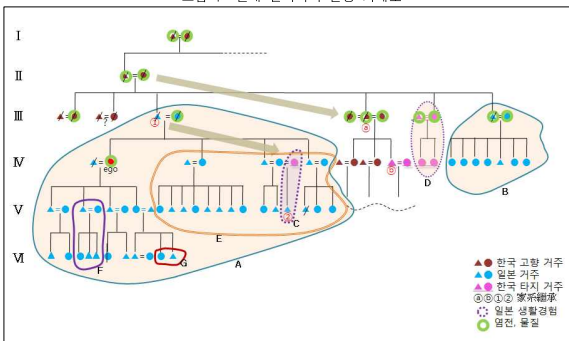
43) 참수(참녀, 해녀)들이 바다 속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연안어로.

44) 옷의 마무리 짓는 과정

할머니는 역 근처의 집, 남편과 보금자리를 만들었던 그 집에서 외손녀와 살고 있다. 매일 집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소일거리를 찾아서 일을 하고 있으나 여름에는 한 두 차례 기차를 타고 오사카시 밖으로 나가 우뭇가사리를 채취하여 돌아온다. 바깥스를 걸쳐서 가는 것이라고 하지만 할머니에게 바다는 여전히 우뭇가사리와 같은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생산공간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채취한 것을 아는 이웃(제주도출신)들과 나눠서 여름철 우무를 만들어 먹었다. 달래할머니는 모집으로 일본에 온 후 지금까지 60여년이 넘도록 단란 번도 고향을 가보지 못하였다.

<그림 1>는 달래 할머니의 고향 제주와 일본에 거주하는 가족과 친척들을 나타낸 것이다. 그룹 A와 B는 일본에 거주하는 가족이며, 그룹 C와 D는 잠시 일본에 살았으나 귀국하여 고향이 아닌 타지에 살고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고향에 거주하는 친척은 숙부(제 III세대에서 둘째 아들)뿐이며, 현재 숙부의 두 번째 부인과 그 두 딸이 있을 뿐이다. 아들 한 명은 한국의 타지에 거주하고 있다. A그룹 안에서도 몇 개의 그룹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국적을 표시한 것이다. 그룹 E(C를 포함)와 F는 한국, 그룹 G는 일본, 그리고 나머지는 "조선"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 1> 달래 할머니의 친정 가계도



이 가계도에서 주목되는 것은, 우선 달래 할머니의 위치에 관해서이다. 할머니는 제주와 오사카라는 두 지역의 가족과 친척을 매개하는 위치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고향의 친척들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 제 III세대의 도요미 일본의 정주가 시작된 이래, 그녀는 현재 일본의 가족 및 친척들 가운데 가장 맏이다. 둘째, 그녀의 가족은 여러 국적으로 나뉘고 있으며 그것은 제 IV세대에서 제 VI세대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거주 공간도 오사카만이 아니라 도쿄, 오카야마 등 점차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셋째, 가계 계승과 관련하여, 제 II세대에서 제 III세대로의 가계는 장남이었던 부친을 대신하여 차남(②)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장자(長子)보다 고향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재산상속과 함께 제사와 별초의 의미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고향에 거주한다는 것'이 장자상속의 원리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한 면에서, 제 III세대에서 제 IV세대의 가계

계승이 이어져야 할 ⑥가 고향이 아닌 타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계계승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C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달래 할머니의 고향방문은 부친을 대신하여, 또 오사카에서만 살았던 동생들을 대신하여 고향의 재산과 친척으로서의 의무 등에 관해 정리, 혹은 조정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달래할머니의 고향방문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조선'으로 된 할머니의 국적은 남북의 냉전체제 속에서 고향의 친척들에게도 왕래와 소통을 멀리해야 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그러나 앞서도 제일 1세대의 조선 국적은 엄밀한 의미에서 국적이 아니었으며 냉전체제 속에서 국적의 의미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제일동료"의 달라진 경제적 위상도 고향방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방 후 제주도의 지역사회와 마을, 그리고 가족

<사진 1> 달래 할머니 친정부모의 제사



과 친인척에게 이르기까지 '제일동료'의 공식적·비공식적인 경제적 후원은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였다.⁴⁵⁾ 한때 할머니의 남동생 역시 고향에 기부금을 내기도 했었으나, 경제적 파산 이후로 고향을 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 역시 고향의 시모를 위해 집을 마련하는 등 경제적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했었으나, 예전처럼 고향 사람들에게 나눠줄 '신물'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⁴⁶⁾ 이 같은 제주지역사회의 문화적 배경은 더 이상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없는 달래 할머니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2) 가족의 역할 재조정과 교환 관계

가족의 일원이 이주하게 되면 남아 있는 가족 및 친족의 관계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달래 할머니 남편의 가계도(<그림 2>)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할머니의 남편은 일본으로 이주하였던 제 1세대이다. 결혼하기 전 장남이었던 형과 함께 오사카로 가게 되었다. 먼저 가 있던 사촌 누이의 알선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②). 그런데 장남이었던 형은 제 II 세대의 숙부의 집에 양자로 간 상태이고(①), 때문에 차남이었던 남편이 대신 시부모의 제사를 맡아야 하였다. 하지만 남편은 고향을 떠나 일본에 거주하게 됨에 따라 시부모의 제사와 별초를 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하였다. 이에 다시 고향에 있던 3남 막내 동생이 시부모를 봉양하고 제사와 별초를 담당하게 되었다. 두 형제(특히 할머니 부부)는 시모가 살 집을 마련하여 막내에게 주었고(③), 막내 동생은 일본으로 간 두 형을 대신하여 부모를 모시고 친족의 의무를 대신 맡은 셈이었다. 또 한편, 일본에서 정주기반을 마련한 할머니 부부는 자신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사촌형제의 도일(渡日), 혼인과 정착에 도움을 주었다(④). 이처럼, 같은 세대 안에서 양자(養子)를 비롯하여 도일(渡日), 취직과 혼인, 집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이 오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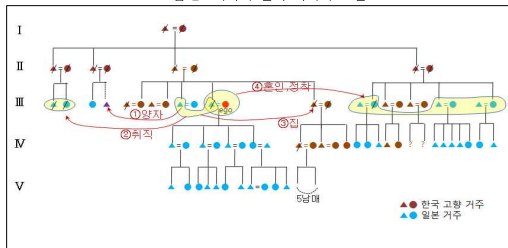
이와 같이, 고향을 떠난 가족과 남은 가족 사이에는 양도되어야 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었고, 또 그에 따른 역할이 조정되었다. 고향에 남은 가족에게는 가계계승과 친족의 의무가 부

45) 1966년부터 2007년까지 교육, 공공 문화사업 등 공식적으로 추계되는 금액은 총 281억 원에 이르고, 총 기증건수 8,640건이다. 최대 후원 건수는 1970년대가 가장 많았다(제주도특별자치도, 2007, 『애향의 보람』 참조). 이것은 공식기관을 통한 후원이며, 실제 마을과 친인척에 '배풀어진 후원'은 이보다 훨씬 상회할 것이다.

46) 안미정, 앞의 논문, 203~206쪽.

어되고, 대신 고향을 떠난 가족은 경제적 후원 및 새로이 도일하는 친척들에게도 다양한 생활상의 지원을 하였다. 고향을 떠나 생활공간이 달라지는 가족과 친족 관계 안에서 상호간의 역할 재조정과 교환 관계가 국경을 넘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가족과 친척 사이의 교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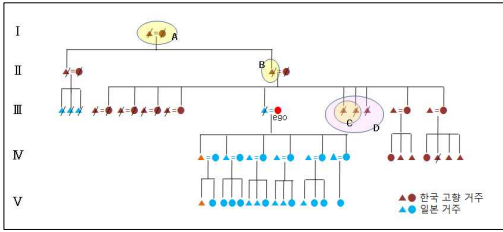


3) 끊어진 가족·친족 관계의 회생: 묘

순이 할머니는 1930년 오사카에서 태어났으며, 부모의 고향은 제주도 북동쪽 해안마을이다. 2남 6녀 중 차녀로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냈고 해방 때 부모와 함께 귀향하였으나, 1948년 제주의 4·3사건을 피해 다시 혼자 오사카로 가게 되었다. 이 일로 그녀의 부친이 사망하였고 언니가 고초를 겪었다. 친척의 집에서 살다 이웃의 소개로 제주도 출신 사람과 혼인을 하였다. 이후 가족의 생계를 위해 그녀가 한 일은 "마도메"(まどめ) 일이지만 이외 제주 사람들과의 "다노모시"(たのもし, 頼母子)도 자녀의 혼사와 학비 마련에 기여했다고 한다. 다노모시란 한 사람의 대표자("오야", 親)를 중심으로 여러 명이 그들을 지어, 회비를 모으고 모아진 큰돈을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회원 1인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큰 소액의 돈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 모여 목돈을 만들고, 만들어진 목돈을 회원들이 돌아가며 가져갈 수 있다. 먼저 받는 사람과 나중에 받는 사람 사이에는 기간 차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고 나중에 받을수록 이익이다. 그러나 도중에 이 목돈을 가지고 사라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상호 신뢰에 기반하지 않고서는 성립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제일 1·2세의 생활에서 다노모시는 급전이 필요하고 목돈이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유용한 목돈 마련 방식이었다. 순이 할머니는 다노모시의 대표자를 줄곧 하였고, 동시에 3개의 다노모시를 운영할 때도 있었다. 일본말과 글, 우리말과 글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은 그녀에게 중요한 '자본'의 역할을 한 것이다. 남편이 학자가 되어 사회적으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 자녀들을 모두 분가시킨 후 지금은 혼자 연금을 받으며 살고 있다.

순이 할머니는 고향의 친정 가족들 외에도 종친회(宗親會)에 참여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고향방문을 어렵게 하는 국적도 바꿨다. 종친회의 활동은 자신의 국적을 바꾸는 중요한

<그림 3> 손이 할머니의 가족과 친척



계이었다. 그녀는 오사카에서 종친 10명을 모집하여 고향 종친회의 모의조성을 위한 모금활동을 했다. 종친회의 활동은 그녀의 귀향에 중요한 전환점이었고 이후 시대 가족의 묘를 마련하는 일들도 이어졌다. 이전에는 조국의 통일을 위한 사회단체 활동도 하였으나 어느 자식도 '귀국'시키지는 않았다. 북으로 가는 귀국은 가족의 또 다른 이산의 시작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 자신이 어려서 부모와 헤어져 일본으로 건너왔으며, 자신으로 인해 부친의 죽음을 겪는 등 생애 속에서 가족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없었다고 한다. 국적을 조선에서 한국으로 바꾸고 남편은 넘지 못하였던 국경을 종친회 활동을 통해 고향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여 온 손이 할머니에게 어찌면 조국의 '통일'이란 가족이 더 이상 이산되지 않는 분단의 상황을 넘어서는 이념형(理念型)에 다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과 일본에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온 가족과 친척들의 단절된 관계를 회생시키는 일은 무엇일까? 손이 할머니는 고향을 방문할 때면 언제나 부모의 묘를 찾아 인사하고, 또 묘를 정비하는 일을 꾸준히 해 왔다. 모친의 묘 답을 정비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2009년에는 선산 땅을 구입하여 시조부모(2기), 시부의 묘(1기), 4·3에 희생된 남편의 형제들의 묘(3기 중 2기) 4기 등 총 5기(A, B, C)의 묘를 마련하였다. 여기에 든 비용은 상속받은 재산은 고향의 다른 가족에게 양도함으로써 해결하였다. 그 외에도 남편의 묘는 일본에 마련하였고 아들딸들이 이후에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가족묘'를 만들었다. 그녀 자신도 그곳에 안장되어 일본 가족의 제1대 '조상'이 될 것이다. 이처럼 제주도와 일본에서 묘를 만드는 일과 친척들 사이에 재산상속에 관한 일을 몇 년에 걸쳐 마무리 하였다.

고향을 방문한 그녀의 활동을 보면, 자신의 친정과 시댁의 "조상들"의 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고향방문의 목적이었다. 그녀는 이제 고향과 일본 두 곳 모두에서 '안정적'인 가계계승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많은 돈을 들여 묘를 만드는 것은 가계계승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묘는 가계의 지속성을 알시하는 상징이라고 하였다. 다시 고향을 찾은 이주자들이 선조의 묘를 찾고 또 묘를 만드는 행위에는 유교적 예(禮)를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친족의 일원으로 존재하는 개인의 위치를 재확인하는 의미도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 남과 북 그리고 일본의 가족

처음 현자 할머니(1917년 생)를 만나고 헤어질 때, 할머니는 제주도로 가게 되면 자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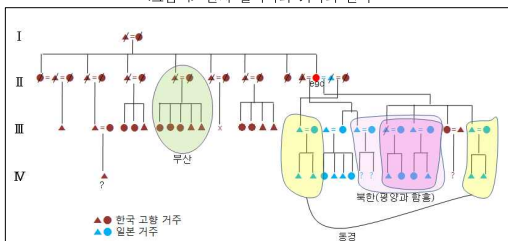
47) 1기는 이미 다른 공동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고향 아무개에게 돈을 전해 달라고 하였다. 친정 부모의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였기에 얼마간의 돈이라도 보태고 싶다는 것이었다. 또 몇 년 후 이번엔 연구자가 부산으로 간다고 하자, 부산 영도의 아무개를 찾아 일본에 고모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얼마간의 돈을 쥐달라고 부탁하였다. 인편(人便)을 통해 가족과 친척의 소식을 묻고 또 돈을 전하는 방식은 아마도 제일 1·2세대들이 고향의 가족과 친척들과 소통하는 오랜 방식이라고 여겨진다. 전화와 우체국이 생겨 편리한 방식이 있음에도 단지 제주도가 고향이라는 이유로 연구자에게 현금을 건네 달라고 부탁하는 할머니의 인편 방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조선시장의 오래된 터줏대감마냥 현자 할머니는 언제나 자진기를 타고 동서로 난 길 시장 길을 달린다. 아침부터 점심까지는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오후에는 시장 안 가게(단골 가게가 있다)에서 이런저런 한담을 하다가 오후 서너 시경에 집으로 돌아와 방안에 있으면 아는 인근의 사람들이 지나가다 안부를 묻고 또 이야기하고, 길러오는 자식들의 안부 전화를 받다보면 저녁이 된다. 이때쯤 부엌의 렌지 위 선반에 놓아둔 향대에 향을 피우는 것도 중요한 일과의 하나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의 발길을 밝혀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왕상(帝王床)에 올리는 비닐의식이었다. 그 형식이 너무나 간단하고 순간에 이루어지므로 만약, 정화수와 향대가 없었다면 그것이 의식인지 알아보기도 어려울뿐더러 그 자연스러운 몸놀림이란 몸에 배어있어 마치 일상적인 동작처럼 느껴진다.

현자 할머니는 제주시 근교 해안마을 출신으로 5남 3녀의 막내딸로 태어났다. 막내딸로 유년시절은 유복하였으나 첫 혼인한 남편이 사고로 죽고 다시 재혼을 하였다. 두 번째 남편 역시 재혼이었다. 그리고 해방 이후 제주 4.3사건의 발흥하여 엄혹한 상황을 피해 오사카로 이주하게 되었다. 해방 이전에도 일본에서 살았었기에 할머니의 일본행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한다. 남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기에 가족의 생계는 온전히 할머니의 몫이었다. 몸부터 가을까지 일본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물질을 하였고, 늦가을부터 겨울에는 조선시장의 방앗간에서 일을 하였다. 열심히 일하여 번 돈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집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림 4>에서와 같이, 현재 할머니의 가족들은 오사카 외에도 남과 북에 흩어져 있다. 큰아들과 막내아들은 도쿄에 거주하며, 2남, 3남, 4남은 '귀국사업'에 의해 북으로 간 후 생이별하게 되었다. 거의 매일 거르지 않고 안부 전화를 하는 아들은 도쿄의 큰 아들이었다. 장남을 위해 할머니는 고향을 끊어 보내거나 틈틈이 가능한 대로 음식을 챙겨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2중 방에는 막힌 뱃길이 열리면 북에 사는 아들들과 며느리, 손자손녀들에게 보낼 '신물'이 방 한쪽 높이 쌓여 있었다.

<그림 4> 현자 할머니의 가족과 친척



앞서 보았듯이, 귀국사업은 북한의 “지상낙원” 선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 반도의 식민지와 냉전체제의 전환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남북한, 일본, 소련, 미국, 국제적십자 등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여전히 가족의 만남을 예측할 수 없고, 왕래의 가능성은 남한과 북한, 북한과 일본 간의 정치적 역학 관계에 달려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으로 간 헤어진 아들들에 대한 할머니의 그리움은 개인의 뼈아픈 사정이라고만 하기엔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의 그늘을 뒤돌아보아야만 한다. 어쩌면 끊어질 수도 있는 불안한 가족과 친척들의 사이를 이으려는 노력이 할머니의 일관된 것이기도 하며, 이와 같은 원초적인 방식은 그만큼의 불안정한 할머니 가족의 상황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할머니의 가족에서 주목되는 것은, 여러 아들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장남과 막내아들만은 일본에 남아 있다는 점이다. 연구자가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언제나 듣게 되는 이야기 속에는 도쿄에 사는 장남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자랑이었다. 한국사회에서 가계 계승은 장남을 중심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장남을 북한으로 보내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을지 모른다. ‘귀국사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할머니 가족에게 있어 어느 아들인가와는 이산가족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장남과 막내를 남겨 둔 할머니 가족의 선택에는 부계친족 원리에 따라 가족의 해체를 막고 싶은 바람과 세대의 영속성을 지향하는 가치가 투영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⁴⁸⁾

5. 맺음말

이상과 같이, 일본(오사카)이라는 이주사회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재일환인의 가족과 친족에 초점을 두어 다양한 경계와 이산의 양상을 기술하였다. 제주도출신의 세 여성의 생애를 통해, 여성들은 고향과 일본 오사카의 가족과 친족을 잇는 중요한 매개자 위치에 있으며, 특히 고령이 된 재일 1세들의 생활은 고향과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고 지속하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다양한 층위의 재일환인사회 속에서도 재일 1세들의 가족과 친족의 문제는 일본이라는 이주사회의 공간 속에서 다른 한인들과 동질적이지 않은 중층적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보였다. 세 여성의 삶에서 자유로이 갈 수 없는 조국과 고향을 쉽게 만날 수 없는 가족과 친척의 문제와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다. 한반도의 식민지시대로부터 냉전체제로 이어져 온 국제적 정치질서의 복잡다단한 경계가 가족과 친척 사이의 ‘경계’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후원자 역할을 해야 하는 제주도 지역의 문화적 관행도 ‘재일교포’에게는 만만찮은 친족의 의무로서 그들의 귀환길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일간에 걸쳐있는 재일환인 1세들의 가족과 친척의 문제는 정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고향에 경제적 후원을 지속하고, 고향에 표를 만들며, 장자를 중심으로 가계계승을 피하는 것 등은 가족이 흩어져 해체될 수 있는 위기 속에서 세대계승을 피하는 문화적 실천이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적 행위의 목적은 가족의 영속성과 경계가 놓여 있는 가족과 친족 사이의 네트워크를 지속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재일 1세 여성들의 문화적 위치는 보다 분명해진다

48) 장남과 더불어 막내아들들을 북한으로 보내지 않은 것은 막내아들의 나이도 감안한 선택일 수도 있으나, 또한 가족의 해체될 수 있다는 위기감 앞에서 딸자 상속이라는 또 하나의 선택을 고려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하겠다. 그들은 한·일 국가 간의 경계사이며, 그리고 식민지와 냉전을 겪은 한국사회가 산업사회로 전환되어 온 근현대사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윗세대와 아랫세대, 고향과 현지의 가족과 친척, 시가와 친정 등 여러 관계의 매개자인 동시에 관계를 조절하는 위치에 있음을 기술하였다. 아울러 재일환인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으로서 이들의 가족의 이산과 친족 관계는 복잡다단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경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분명한 경계선으로 존재하지만⁴⁹⁾ 또한 국경은 사회관계 속에서 비가시적이고 다층적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분단국가의 국민으로 남북으로 나뉘고, 한민족 집단으로 동일시되는 재일환인사회, 그 가운데 재일 1세들은 어느 한 쪽으로 분리할 수 없는 역사적 경계선상에 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이쪽과 저쪽으로 분리되어야 하는 국민 국가의 틀은 어느 한쪽으로 온전히 분리되지 않는 또 다른 소외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만 한다. 오사카에 있는 한 사찰 안에는 너른 모지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고향(제주)의 주소와 일본의 현주소를 동시에 새겨놓은 묘비들이 즐비하다. 국적이 달라서, 혹은 고향에 표를 둘분 가족이나 친척이 없거나 일본에서 살아가는 가족을 위해 고향으로 가지 못한/않은 여러 주검들이 쌓여 가고 있다.

49) 이광규, 1997, 앞의 책, 80쪽.

<참고문헌>

- 김계르만, 2005, 『한인이주의 역사』, 박영사.
- 김창민, 2003, 『제일교포 사회와 제주 마을 간의 관계 변화: 1930-2000』 『비교문화연구』 9(2).
- 문옥표, 1995, 『해의 이주노동의 실태: 도일 한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사례조사 연구』 『한국의 사회와 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 2002, 『가족 및 친족생활』 『일본 관서지역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 문옥표 외, 2006, 『해외한인의 민족관계』, 아카넷.
- 송기관, 2003, 『"민족"을 배운다는 것』,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국사회학회·한국문화인류학회 공동심포지움 자료집.
- 안미경, 2008, 『오사카 제일(在日) 제주인 여성의 이주와 귀향』 『탐라문화』 32.
- 오사카제주도연구회, 2008, 『在日 제주인의 과거와 현재』, 학술세미나 자료집.
- 유철인, 2000, 『제주 사람들의 생활세계에서의 '일본'』 『한국문화인류학』 33(2).
- 윤인진, 2002, 『세계 한민족의 이주 및 정착의 역사와 한민족 정체성의 비교연구』 『제외한인연구』 12.
- 이광규, 1981, 『在日韓國人의 調査研究: 大阪 生野區를 中心으로(1)』 『한국문화인류학』 13.
- , 1997, 『민족과 國家』, 일조각.
- , 1998, 『韓國家族의 社會人類學』, 집문당.
- 이문용, 1988, 『제일 제주인의 의례생활과 사회조직』, 제주도연구 제4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 임채환 외 5인, 2005, 『제외한인 집거지역 사회 경제』, 집문당.
- 장경섭, 2009, 『가족·생애·정치경제』, 장비.
- 제외한인학회, 2002, 『제외한인연구』 12.
- , 2002, 『제외한인연구』 13.
- 정병호, 1996, 『제외한인사회』, 『민족과 문화』 4.
- 정병호, 2003, 『문화적 저항과 교육적 대안: 제일 조선학교의 민족 정체성 재생산』 『비교문화연구』 9(2).
- 제주발전연구원·제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5, <在日 제주인의 삶과 제주도>, 학술세미나 자료집.
- 제주도특별자치도, 2007, 『애향의 보람』.
- 姜尙中, 2005, 『在日ふたつの祖國への思い』, 講談社.
- 姜在彦, 1976, 『在日朝鮮人の65年』 『季刊 三千里』 8(冬).
- 高貫侑, 2007, 『コリアタウンに生きる: 渋谷のライフヒストリ』, エンタイトル出版.
- 菊池嘉是, 2009, 『北朝鮮歸國事業』, 中公新書.
- 枚方市教育委員会, 1991, 『在日朝鮮人の歴史』, 枚方市市民歴史講座記録集.
- 文道平, 1998, 『在日朝鮮人の歴史と展望: 近現代朝鮮と日本の關係史』, 大阪經濟法科大学出版部.
- 福岡安則, 2008(1993), 『在日韓國・朝鮮人』, 中公新書.
- 山田照美・朴鐘鳴 編, 1992(1991), 『在日朝鮮人』, 明石書店.
- 生野區制50周年記念事業實行委員會, 1993, 『生野區50年のあゆみ』.
- 生野區役所, 1997, 『生野區50年の歴史と現況』, トリオ印刷.
- 小熊英二・姜尙中 編, 2008, 『在日一世の記憶』, 集英社.
- 安美貞, 2009, 『海を挟んだ家族と親族-在日コリアンの三人の女性のライフ・ヒストリ(바다를 사이에 둔 가족과 친족-제외한인 세 여성의 생애사)』, <越境する人々とナショナルリズム(국경을 넘는 사람들과 내셔널리즘)>, 第5回 國際海港市國際學術會議資料集.
- 外村大, 2004, 『在日朝鮮人社會の歴史學的研究』, 綠蔭書房.
- 李仁子, 1999, 『移住する生, 歸郷する死-ある在日濟州道出身者の歸郷葬造の事例』 『人間と環境』 9, 昭和堂.
- 伊地知紀子, 2000, 『日常の生活實踐話-韓國近現代と濟州島の經驗から』 『變貌する現代韓國社會』, 世界思想史.
- 伊地知紀子, 2006, 『濟州島と日本における濟州人の生活』 『濟州島』 10.
- 李進熙 編, 1980, 『季刊 三千里』 24.
- 塚崎昌之, 2009, 『大阪-濟州島航路の經營と濟州島民族資本』 『在日朝鮮人史研究』 39.
- 河原典史, 2006, 『植民地期濟州島の水産加工工場と日本人の移動』 『濟州島』 10.
- Weiner Michael(ed.), 1997, *Japan's Minorities: The illusion of homogeneity*; Routledge.
- Changsoo Lee and George De Vos, 1982, *Koreans in Japan: Ethnic Conflict and Accomodation*. Univ. of California Press.
- East Rock Institute, 2000, Korean in Japan: New Dimenssions of Hybrid and Diverse Communities, Sonia Ryang(ed.), *Korean And Korean American Studies Bulletin*, Vol. 11. No. 1.(柏崎千佳子 譯, 2007, 『ディアスポラとしてのコリアン: 北米, 東アジア, 中央アジア』, 新幹社.)
- Tessa Morris-Suzuki, 2007, 『Japan's Hidden Role In The 'Return' of Zainichi Koreans To North Korea』 (<http://zmag.org/znet/viewArticle/6926>).
- 大阪府 홈페이지 자료
<http://www.pref.osaka.jp/shichoson/juki/juki2103.html>(2009.10.29.검색).
- http://www.pref.osaka.jp/toukei2/jinkou_n/xlslst.html(2009.10.29.검색), データおおきか2006.

Family and Kinship of Korean Women in Japan between Borders

An, Mi-Jeong

(HK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International Maritime Affairs,
Korea Maritime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describe the varying borders and dispersions of family and kinship exploring the life stories of three Korean women in Japan. Each of these aged women have played a role as mediator between the family and kinship in homeland and those in Japan. In their lifetimes, the impossibility to go freely to their mother country and homeland can be separate apart from the fact that it has been not easy for these families/relatives to meet each other. Because the complicate and multifold International politics from the colonial period to the Cold War system has affected the relations of family and kinship with diverse borders. Between the family and kindred which left home and those which were left home, the coordination of roles and the connection of exchanges has been made up reciprocally. It can be said that the patrilineality that appears in the course of pedigree successions reflects the values of continuity that play a part in preserving the networks of dispersed families, even though it has reinforced somewhat the traditional patriarchy.

Key words: Koreans in Japan, Osaka, Jeju-do, Family and Kinship, Nationality, Homeland, Immigration.

소속 및 직책: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HK인구교수

연락처: 직장 051)410-5272 휴대폰 016-652-8563, email: gasirian@hanmail.net

주소: 직장-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번지 한국해양대학교 종합관 3층, 국제해양문제연구소

투고일: 2010. 4.2.

확약서: 별도